

강풍·풍랑... 김 양식장 '썩대밭'



날아간 '어민의 꿈' 지난 13일 강풍으로 4천400여책의 김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해남군 화산면 해안에 풍랑에 휩쓸려 떠 내려온 김 양식장 시설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해남·완도·진도 1,246ha ... 30억원 피해 어민들 "郡 무관심·능장대처 때문" 분통 전남, 선박 30척·비닐하우스 42동 파손 피해 '눈덩이'

지난 13일 전남 서남해안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해남의 김 양식장에서만 28억원의 피해가 나는 등 전남 해안지역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군 화산면 등 5개 면의 216 어가 666ha의 김 양식장이 강풍에 파손되는 등 해남과 완도, 진도 3개 군에서 김과 미역·굴 양식장 1천246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진도와 완도에서는 각각 3천639책(260ha), 4천49책(289ha)의 김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고, 진도에서는 미역(306줄·30.6ha)과 굴(4줄·0.4ha) 양식장 피해도 있었다. 이 가운데 해남군은 화산면과 송지

면, 현산면에서만 김 양식장 9천300여책(1책은 88㎡)이 파손돼 28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해남 전체 김 양식장(10만700책)의 9.2%에 달하는데, 이 해역은 수심이 얇은데다 지난 13일 초당 최대 풍속 23.1m의 돌풍이 불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산면이 해남군 전체 피해의 절반에 가까운 4천400여책의 피해를 입은 등 피해가 집중됐다. 화산면 김 양식장 피해 어민들은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해 군의 무관심과 능장대처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남군 화산면 김모(52)씨는 "김양식장 시설물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

린 것을 보고 해남군에 전화를 했는데, 군 담당자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모(58)씨는 또 "군청 직원들이 강풍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13일 오후까지 아무런 조치나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14일 오전에야 피해 현황을 찾아와 부산을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강풍과 풍랑경보가 내려진 13일에는 해상 강풍으로 도저히 피해상황을 알 길이 없어 각 어촌계에 다음날 피해현황을 받을 것이라고 전달했었다"고 해명했다. /최경필기자 cki@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두륜산 케이블카 '스톱' 승객 90명 공포의 2시간

지상 20m 높이 매달려

해남군 두륜산 케이블카가 기계 고장으로 지상 20m 높이에 매달린 채 갑자기 멈춰서 탑승객 90명이 공중에 서 2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다.

15일 오후 3시10분께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상·하행선 케이블카 2대가 역사(驛舍)를 100여m 앞두고 멈춰섰다. 상하행선 케이블카에는 각각 승객 45명씩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구조되는 순간까지 높이 20m의 케이블카 안에서 1~2시간 공포에 떨

어야 했다. 또 승객 박모(여·31·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급정지 순간 발목을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 40명과 경찰 등은 케이블카 내에 설치된 완강기 구명 주머니로 승객 한 사람씩 구조작업을 벌여 사고발생 2시간반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승객 90명을 모두 구출했다. 또한, 산 정상 역사에서 케이블카를 기다리던 등산객 200여명은 걸어서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구조된 승객들은 케이블카 역사에서 직원들의 안내를 대치와 회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승객 조모(여·32)씨는 "케이블카 역사를 100여m 앞두고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진동이 심해 너무 놀랐다. 높이가 무려 20여m에 달한데다 날씨가 좋지 않아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선 3개 중 예비 선 하나가 끊어지면서 다른 선과 영기는 바람에 멈춘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정지된 두륜산 케이블카는 최근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지난 2003년 7월께도 한 차례 정기검사를 받고 있었다.

한편, 지난 2003년 2월 국내에서는 최장거리(선로 1.6km)로 개장한 두륜산(해발 703m) 케이블카는 해발 568m에 상부역사가 위치하고 있고, 하루 50여 차례 왕복 운행하고 있다. 케이블카 정원은 승무원 1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며, 지난해 2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15일 오후 3시10분께 해남군 두륜산의 케이블카가 기계고장으로 공중에 서 멈춰서자 탑승객 가운데 한 명이 케이블카에 설치된 구명줄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다 구조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니원침 (7729) 김중두



여수산단 폐기물공장 불

15일 오전 9시께 여수시 월래동 여수산업단지 내 Y폐기물 처리공장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 나 불이 났던 폐기물을 태우고 1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게 25분 만에 진화됐다. /여수=박규기기자 ypark@kwangju.co.kr

"성매매 여성 불러라" 모델서 주목

성매매 여성 불러라 모델서 주목. ○알코올 전문치료 병원에서 탈출(?)한 뒤 모델에 투숙한 4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5일 모델 주인을 폭행한 40대(44)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49)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김씨를 찾아와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날 오후 광주에 한 알코올 전문치료 병원을 불려 빠져 나온 뒤 술을 마시고 모델에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횡설수설. /김희호기자 khh@kwangju.co.kr

마취 성폭행법, 노부부 생활비 2천만원도 '꿀깍'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가축용 마취제를 이용해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20대가 지난해 다른 범죄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병을 앓는 노부부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다방 여종업원에 가축용 마취제를 탄 술

을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김모(27)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모(62)씨 부부의 생활비 2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사행성 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다 붙잡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남구 무로급식소에서 사회봉사를 이

행하던 중 이씨를 속여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씨를 병원에 데려다 준 뒤 이씨 명의의 통장에 현금 3천200만원이 입금돼 있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

화물차끼리 충돌 나주서 2명 사상

14일 오후 8시10분께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사거리에서 나주에서 광주 방향으로 가던 노모(65)씨의 전남83가 74××호 1t 화물차와 김모(47)씨의 전남83나 10××호 1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노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김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나주대학 前 학장 직위해제 무효"

광주지법 판결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를 박탈당한 나주대학 전직 학장에 대한 학교측의 직위해제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병하)는 나주대 전 학장 서모(52)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 확인소송에서 "법인 이사회측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일

부 교수들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학과장 선임 당시 모든 교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보고 학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나주대 학장으로 임명됐으나 이후 교수들이 학장 선임 과정에 반발해 취임 직후부터 갈등을 빚었으며, 같은해 10월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되지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원광신협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자금"

무보증 신용대출 사업자 2,000만원까지 대출

- 특례신용보증서대출 조건**
 - 상환기간 : 1~5년 이내
 - 대출원금 : 2,000만원 이내
 - 대출이율 : 7.3%~매 분기 변동금리 적용
- 대출가능자본**
 - 사업자등록 후 6개월(1,0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제외대상 : 부동산업이나 사치형택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 기업
-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신협 기본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인 경우 생략)
 - 금융거래확인서(대출거래 1,000만원 이상인 금융기관)
 - 주민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2009년 재테크! 신협 비과세예금으로 시작하세요!"
신협 비과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신협 비과세 혜택
2009년 1월 1일부터 신협의 비과세 혜택이 3,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수익률 높은 신협비과세 예적금
은행 예적금의 이자는 15.4%의 세금을 떼지만 신협 예적금은 3천만원까지 1.4%만 부과합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
신협 예적금은 신협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장기적금 연이자 5.5%

함께하면 행복한 은행
광주원광신협
본점 227-4474 [동부경찰서 옆]
금호지점 383-4474 [금호마을점 옆]

법무사 권속원 김갑순
공인중개사

(주)옥션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찰대 입찰장 앞)

친절상담
☎ 062)222-8446
H. 010-3666-8446

구분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근린시설	혼남동	74/74	10억	4억4870만	1층/동구주사우실	
	우산동	727/1432	67억2820만	30억1430만	3층/동구주사우실	
	오차동	281/281	7억4940만	4억1960만	1층/우산동2인사물고	
	나주남동	290/82	5억4700만	3억830만	1층/동구주사우실	
	오차동	50/52	1억6110만	9030만	2층/동구주사우실	
	수기동	50/103	4억2580만	2억8840만	3층/우산동1인사물고	
	안산동	362/994	41억4000만	16억8600만	3층/동구주사우실	
	지산동	151/213	5억5400만	2억8300만	2층/동구주사우실	
	▶근린상가					
	소재지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대림동	11	8200만	2200만	1층/우산동1인사물고		
우산동	24.7	2억5200만	1억1200만	2층/동구주사우실		
중앙동	60.7	2억9200만	2억4400만	2층/동구주사우실		
남동	183	4억5000만	1억2900만	3층/동구주사우실		
화정동	9.4	9400만	2695만	3층/동구주사우실		
마곡동	48.9	2억6000만	7460만	2층/동구주사우실		
신정동	29.8	1억5700만	7000만	6층/동구주사우실		
▶근린주택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지산동	82/136	4억7000만	3억2900만	3층/동구주사우실		
화정동	76/95	3억2100만	2억2470만	3층/동구주사우실		
중앙동	69/58	2억9200만	2억194100만	3층/동구주사우실		
주월동	43/42	2억3830만	1억8877만	3층/동구주사우실		
나주남동	344/184	4억4180만	1억9800만	3층/동구주사우실		
▶다거구(월동)/숙박시설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지산동	74/99	2억9400만	1억9482만	15개/동구주사우실		
중앙동	85/123	4억7600만	3억2034만	18개/동구주사우실		
화정동	89/138	5억2300만	3억8600만	18개/동구주사우실		
광현동	91/221	5억3370만	3억7380만	20개/동구주사우실		
남동	632/828	15억4000만	4억4170만	3층/동구주사우실		
▶주목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중앙동	848/41	1억2000만	6760만	전원주택		
생촌동	51/63	1억7800만	1억2460만	2층/동구주사우실		
중앙동	39/47	8680만	4860만	2층/동구주사우실		
중앙동	48/53	1억1920만	6680만	2층/동구주사우실		
신기동	70/97	1억8950만	1억6100만	2층/동구주사우실		
중앙동	24/29	8770만	4820만	2층/동구주사우실		
중앙동	39/47	8780만	6150만	2층/동구주사우실		
본동	89/35	8820만	4940만	2층/동구주사우실		
화정동	44/38	8150만	4565만	2층/동구주사우실		
중앙동	42/48	9520만	5300만	2층/동구주사우실		
중앙동	60/32	5000만	2810만	2층/동구주사우실		
백운동	103/64	3억2220만	1억8610만	백운동인근고급주택		
주월동	43/50	9650만	6760만	2층/동구주사우실		
▶다세대						
소재지	전용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화정동	17.8	3000만	2100만	대형연립2층		
중앙동	57.07	1억9000만	8960만	대주빌라1층		
화정동	13.1	2400만	1680만	광산연립주택2층		
반남동	14.8	4000만	2240만	송림연립3층		
남동	18	2400만	1680만	삼현연립주택1층		
중앙동	19.7	7000만	4880만	이리빌1층		
중앙동	18.2	4300만	3010만	해정연립3층		
▶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운수동	155/136	3억2400만	2억2680만	소문공관내		
화정동	1248/641	7억766만	3억1700만	동구주사우실		
중앙동	294/206	4억4000만	2억4680만	동구주사우실		
화정동	1990/869	14억8820만	5억5680만	동구주사우실		
중앙동	634/185	11억5000만	5억1560만	매일유업내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감평가	최저가	비고	
백운동	대지	379	7억4120만	5억1890만	현대연립	
백운동	대지	682	2516만	1761만	백운마을	
남동	대지	473	1437만	1000만	동구주사우실	
화정동	대지	447	1623만	1137만	대림마을	
중앙동	전	961	2850만	2000만	동문마을	
중앙동	전	608	1812만	1270만	구림마을	
남동	대지	44	3460만	2430만	나주연립	
남동	대지	731	3623만	2030만	화정마을	
중앙동	대지	713	3355만	1500만	동구주사우실	
중앙동	대지	720	2712만	1900만	동구주사우실	
▶상업						
소재지	대/건	감평가	최저가	비고		
운수동	155/136	3억2400만	2억2680만	소문공관내		
화정동	1248/641	7억766만	3억1700만	동구주사우실		
중앙동	294/206	4억4000만	2억4680만	동구주사우실		
화정동	1990/869	14억8820만	5억5680만	동구주사우실		
중앙동	634/185	11억5000만	5억1560만	매일유업내		